

# 임실군 로컬JOB센터 운영 탄력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 선정



심민 임실군수

임실군이 일손이 부족한 농업인과 일자리가 필요한 구직자들을 잇는 다리 역할을 강화, 일자리와 인력난 해소에 탄력을 받게 됐다.

군은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국도비 2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산업 여건에 맞춰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의 길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군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국도비에 군비 3억원을 추가 투입해 총

5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임실군 로컬 JOB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임실군 로컬JOB센터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농촌일자리지원사업, 찾아가는 일자리 서비스,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다방면에서 뛰어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농촌일자리 지원사업은 바쁜 농번기에 일손 부족으로 난감한 농업인을 위해 관내 인력과 도시 유능인력을 연계하여 농업인의 고용을 돕어 드리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에게는 종식비, 간식비, 도농축진수당 등을 제공하며, 농촌일자리가 필요한 구직자에게는 교통비를 지급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이 가입된다.

또한 임실군 로컬JOB센터는 찾아오

는 서비스 제공을 벗어나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으로 기업과 구직자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지난 해에는 상용직 근로자 연계 목표 200명을 훨씬 뛰어넘는 356명이라는 뛰어난 실적을 낸 바 있다.

올해에도 농촌지역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특화 기업 등 지역산업기반에 발맞춰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해 지역의 인력난 해소가 기대된다.

심민 군수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농촌일자리지원사업 등 핵심사업들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지속할 것"이라며 "임실군 로컬 JOB센터가 일자리 컨트롤타워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최영일 순창군수가 2일 관내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영농 준비 현장과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며 현장 중심 행정을 이어갔다.

## 주요 사업장 현장 행정 나서

### 최영일 순창군수, 10일까지 11개 읍·면 총 28개소 방문

최영일 순창군수가 2일 관내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영농 준비 현장과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며 현장 중심 행정을 이어갔다.

이번 현장 방문은 2일부터 10일까지 11개 읍면을 모두 방문하는 일정으로, 이 기간 동안 영농 준비 현장과 주요 사업장 총 28개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최 군수는 군정 설명회 당시 건의된 등계면 강촌저수지 소하천 정비 사업을 시작으로 수장소하천과 이 동소하천 정비사업을 차례로 방문해 각 현장의 사업 진행 상황과 문제점을 점검했다.

이 중 강촌저수지 소하천 정비사업은 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집중호우 시 범람 위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사면 보강과 소하천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최근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용골산을 방문해 섬진강 정공목 진입 도로 개설사업과 용골산 자연휴양림 기반시설 조성사업 현황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관광객 편의를 위한 공중화장실과 다목적 광장 조성 등 시설

확충 상태를 점검하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 처리 등 세부 사항까지 꼼꼼히 확인했다.

마지막 일정으로 방문한 인계면에서는 치유농업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살랜드 특화 건강증진형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현황을 차례로 둘러봤다.

각 사업 현장에서 최 군수는 사업의 필요성과 진행 과정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긴밀히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치유농업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현장에서 "농업과 농촌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치유농업 시설을 조성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최영일 군수는 "직접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면서, "모든 사업이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더 나은 순창을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 춘향제 기간 셔틀버스 4개 노선 운행

### 5월 3~6일 관광객 교통 편의 위해 20분 간격 순환

남원시는 제95회 춘향제 기간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위해 오는 5월 3일부터 5월 6일까지 4개 노선의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운행은 남원역, 종합스포츠타운, 임시주차장 등 교통 거점과 연계하여 대중교통 이용자뿐만 아니라 자가용을 이용하는 방문객까지 모두 편리하게 축제장을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노선별 기점과 종점을 살펴보면 △1노선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출발 쌍교동성당 하차 △2노선 남원역 출발 쌍교동성당 하차 △3노선 춘향문화예술회관 인근 연지매점 출발 쌍교동성당 하차 △4노선 더리우아파트 앞 임시주차장 출발 쌍교동성당 하차 등 4개 노선이다.

운행은 전 구간 무료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약 20분 간격으로

순환되며, 올해는 점심·저녁 식사 시간대 셔틀버스 미운영 문제를 개선해 전 시간대 운행으로 관광객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남원시 춘향제지원위원회는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운 도심 내 교통 상황을 고려해 셔틀버스를 마련했다"며, "자가용 이용 시에는 가급적 임시주차장을 이용하고 셔틀버스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하게 행사장을 방문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농기센터, 과수화상병 차단 총력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는 사과·배 농가 200곳(총 190.7ha)에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방제약제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사과와 배에 피해를 주는 세균성 병해로, 감염 시 잎과 가지가 갈변하며 불에 탄 듯한 증상이 나타난다. 2015년부터 국내에서 발생해 현재는 국가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동안 주요 발생 지역은 경기·강원·충청 등이었으나 최근에는 전북까지 확산되면서 지역 농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약제선정심의회를 통해 선정한 방제약제 3회분(107백만원)을 관내 농업인들에게 공급했다.

특히 꽃눈이 트는 개화 전(1차 방제) 시기인 3월 말까지 약제를 사용해 방제를 마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

며, 개화율이 20~50% 도달한 시점 2차 방제, 이후 5~7월 3차 방제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는 예정단(2명)으로 2월~10월말까지 상시 예찰활동과 함께 농가에 대한 과수화상병 예방 교육도 병행하여 사업추진의 내실을 다지고 있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유수경 현장지원과장은 "과수화상병은 꽃이 마르고 잎자루를 따라 갈변 및 어린 가지가 갈고리 모양으로 휘고 우뚝뚝·갈색의 세균액 유출이 나타나고 불에 탄 듯이 마른 증상을 보인다"며, 발견 시 남원시농업기술센터(620-8097)로 신고해 주길 당부하면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군, 차량 구입으로 환경미화원 작업환경 개선

임실군이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화된 종량제 수거용 청소 차량 2대를 후방 저상형 청소 차량으로 교체 병행하여 사업추진의 내실을 다지고 있다.

기존 노후화된 청소 차량은 내구연한이 만료되었고, 운전석과 조수석의 받침이 높아 승차차 시 근골격계 부상 위험이 노출되어 있었다.



이번에 도입한 후방 저상형 청소 차량은 운전석과 폐기를 적재할 사이에 별도의 탑승 공간이 있어 미화원이 편하게 오르내릴 수 있으며, 차량 측면에는 앉은 조차 안전 스위치, 후방에는 비상 안전멈춤버튼이 설치되어 있어 환경미화원의 껌사고도 방지할 수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지역 소식통

#### 지리산낙농농협 방취립 조성사업 추진

지리산낙농농협이 지난 1일, 깨끗하고 냄새 없는 청정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방취립 조성사업에 나섰다.

전북농협 축산사업단(단장 소섭)과 지리산낙농농협(조합장 김재욱) 임직원이 함께한 이날 행사는 운봉읍 낙농 농가에서 축산냄새 확산 방지를 위한 완충지대 조성, 자연친화적 청정축산업 구현을 위한 '깨끗한 축산농장 방취립 조성사업'을 진행했다.

김재욱 조합장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축산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축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군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감사위원 선임·교육

순창군의회(의장 손종석)는 지난 3월 28일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2024회계연도 결산감사위원 6명에게 4월 1일 위촉장을 수여했다.

순창군의회는 결산감사위원에 선정이 의견을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 이성을 위원 등 총 6명의 위원을 구성해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및 금고의 결산 등을 검사한다.

또한, 순창군의회는 이날 외부 지방재정연구원 소장을 초빙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감사의 내실 있는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결산감사위원 및 의원, 의회 직원들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대표위원인 신정아 의원은 "순창군 예산이 얼마나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결산감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손종석 의장은 이 자리에서 "결산감사를 통해 순창군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게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실 것"을 결산감사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